

광주고법 검찰 견제장치 ‘유명무실’

박주민 의원 “재정신청 인용률 0.35% 전국 최하위”

소극적 태도가 원인... 지방법원 법관 충원도 시급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 최하위는 광주고법(0.35%)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0.49%)도

낮은데 광주고법의 인용률은 이마저도 미치지 못해 광주고법의 재정신청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해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 최근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올 상반기 0.49%로 4년 연속 1%를 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은 광주고법(0.35%), 대전고법과 부산고법(각 0.46%), 대구고법(0.47%), 서울고법(0.54%)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과 광주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원 23곳 중 21곳이 법관 부족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관정원법에 따른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관 부족 상태의 법원이 국민들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의 경우 모두 법관 결원상태로 광주지법(4.4%)과 전주지법(6%)을 제외한 9곳이 전국 법관 평

균 결원률(7.4%)보다 높은 결원률을 보였다. 대전·광주지역 지원 중 전국 결원률보다 2배 이상의 결원률을 보이는 곳은 모두 12곳으로 파악됐다. 제천지원(28.6%), 영동·장흥·남원지원(각 25%), 광주지정법원(22.2%), 대전지정법원과 공주지법(각 20%)은 법관 5명 중 1명 이상이 없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정원법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법원과 각 지원의 법관확충을 통해 사실심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출원 기자** repco333@naver.com

군산 주점 방화범에 사형 구형

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피고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 이모(55)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면서 이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

우병우 ‘10억 몰래 변론’ 처벌될까

법조계 “청탁 입증에 관건... 혐의 구성 쉽지 않을 듯” 수임신고 않은 변호사 10년간 22명, 절반 검찰 출신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등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법망을 피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입증되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1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건 김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착수금 등 명목으로 총 10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를 거쳐 우 전 수석이 변호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내용만으로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성립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도 우 전 수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등 직접적인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우 전 수석의 경력에 기대를 했을지언정 부정청탁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청탁 정황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다”며 “우 전 수석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한 뒤 기록을 검토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 구성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사건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다 적발된 변호사가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변호사 22명이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절반가량인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으며,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기간 변호사 75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변호사 업무방조규정 위반(182건)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금지 위반(98건) ▲성실의무 위반(83건) ▲수임제한 위반(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



가을 행락철 안전띠 등 집중단속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광주 북구 용봉천일원에서 경찰관이 안전띠를 비롯한 방향 지시등, 끼어들기 등을 단속하고 있다. **오세우 기자** dk5325@hanmail.net

‘음주 뺑소니’ 다른 잣대... 판사는 감봉 vs 직원은 해임

채이배 의원 “제 식구 바주기식 솜방망이 조치”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비슷한 비위를 저질러도 판사에게 훨씬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 판사는 징직·서면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받았지만, 법원 공무원은 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받은 판사는 내부 징계 처분에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감봉 1~2개월의

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됐고,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공무원은 파면 조치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는 징직·감봉·견책의 징계 처분만 할 수 있다.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 파면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채 의원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판사에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법원이 비위에 대한 징계를 차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판사에 대한 몇몇 징계 사례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보인다”며 “뇌물수수로 실형 선고가 되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 파면해야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징직 1년 처분을 하는 것은 제 식구 바주기식의 조치”라고 밝혔다. **뉴스**

목표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던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12)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같은 학년 다른 한 친구와 다투다’는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백만성 기자** mspark214@naver.com

친구와 다투던 초등생 의식불명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던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12)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같은 학년 다른 한 친구와 다투다’는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백만성 기자** mspark214@naver.com

나주 조경 작업장에 차량 돌진

23일 오전 9시 45분께 나주시 도계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54·여)씨가 몰던 외제승용차가 작업 중이던 공공근로자 2명을 친 뒤 나주시청 소속 1톤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공공근로자 3명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작업 장소에 우회운행을 유도하는 차량을 세워놓고 도로 1개 차선을 통제하던 뒤, 조경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신호로 작업 사실을 알렸지만 차량이 멈춰서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김진석 기자** suk1586@naver.com

제5회

무등산 무돌길

자전거

그란폰도

무등산 51.8km

출발 및 도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5.18민주광장)

래리 코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충장사 → 광주호상류 → 담양남면 → 화순이서 → 너릿재 → 학동삼거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참가비 | 없음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마감)

접수 및 문의 | 화신자전거 수원점 062)953-6140, 화신자전거 송정점 062)942-6140

※ 무등산 무돌길 행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주최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18.

10.28.

SUN

08:00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관 | 무등일보
광주에코바이크
Gwangju Eco Bike

후원 | (주) 화신자전거